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 목: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리라 성경:이사야 41장14-20절

14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15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르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거 같이 만들 것이라

16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17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9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싯딤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20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사41:14-20)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

이 시대는 모든 어른들도 청년이 되는 시대이다.

이 시대는 특히 한국청년들에게 놀라운 기회의 시대이다.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은 무시당하는 세대가 아니다.

관심이 집중된 세대이다.

왜냐면 이 시대의 청년들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의 주역들이 낳아 기른 세대이기 때문이다.

산업화를 통해서 고속도로와 산업을 물려받았고,

민주화를 통해서 새로운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일하는 정부,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고속도로를 물려 받았다.

오늘날 특히 북한은 같은 세대의 젊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이 젊은 지도자는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볼 때 독특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과 전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전 세대가 일궈놓은 유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인터넷은 제2의 고속도로이다. 이 고속도로에서의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이 과거의 사무실을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처리가 더 빠르다.

이전 세대가 일궈놓은 산업유산을 잘 물려받아야 한다.

땀 흘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일을 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존경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찾으신다. 이들이 오늘과 내일의 주인공이다.

14 버려지 같은 너 아굽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음란한 동영상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책임지지 않는다. 원망하고 비아냥거리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책임지기 싫어하고 빈둥거리며 놀기만 좋아하고, 자기개발이나 기술 개발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에게 비전이 있거나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

과거의 유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청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항상 모든 세대마다 이렇게 무책임한 청년들이 있어 왔지만, 그들은 항상 낙오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세상에 대해 불만을 품고 뭔가 뜯어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15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레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거 같이 만들 것이라

다시 말해서 땀흘려 일하라는 말씀이다. 사람들 비판하는데 힘쓰지 말고 일로서 승부를 가리라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부는 일하는 정부이다.

정부는 기업형 정부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공무원은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어서는 안된다. 그는 국민의 일꾼이다.

여전히 위기는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든든한 신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동안 세계는 신용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왔다. 여전히 신용이나 은행, 금융상품을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의 배를 채우려는 욕심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용사회를 버릴 수는 없다.

문제는 신용체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이다.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지 말고 신용에 매진해야 한다.

은행은 사람들의 신용을 돕는자가 되어야 한다.

은행은 신용불량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신용을 높여서 돈을 벌려고 해야 한다.

그동안 사법부는 강압적이고 권력 지향적 집단으로 비쳐졌다.

사법부는 범법자를 처단하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더 깊이 관심했어야 한다.

형무소는 죄인을 가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회사는 영리를 위해서 존재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회사가 거룩해 진다면 회사는 훨씬 더 경쟁력이 커질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18 내가 흘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자.

하나님은 아주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과거 선배들이 저질렀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사람들은 교만하면서 지혜를 버리고 탐욕스러우면서 우상에 빠졌다. 또 음란하면서 사명을 망각하고 게으르면서 기회를 잃어갔다.

나도 교만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음란하거나 게으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우리 앞에 우리의 열정을 갈망하는 세계가 놓여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또는 우리가 젊은이가 되어 가서 우리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리라.

<찬양예배>

주제: 제목: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라 말씀:

1 이세의 즐거이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 11:1-9)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자.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 되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나의 힘이다.

이세의 즐거이에서 메시야가 나왔듯이, 우리는 예수의 즐거이에서 나온 자들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신다.

2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와 영; 곧 성령.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지혜와 총명; 지혜란 어떻게 하면 가장 유익할지를 아는 능력

총명이란 관찰의 능력을 말한다. 똑 같은 실험을 해도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학자 박사)

모략과 재능의 영;모략이란 일을 꾸미는 순서와 역할을 짜는 능력을 말한다.

재능이란 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내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모략이란 재능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지식이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자.(교사,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영을 받아야 한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런 일들을 갈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

3 그가 여호위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총명의 신이 임하면, 죄인들이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보는대로, 말하는 대로, 듣는대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리를 분별해서 판단하게 된다.

-세상 일이 왜 어그러지는가? 자기의 의향대로 말하지 못하고, 상대의 의향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이 어그러진다.

-총명의 신이 임하면 된다. 갈망하자.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 보통 사람들은 인정으로, 자비로 가난한 자를 두호한다.
-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다.
- 가난할수록 지엄하신 하나님의 눈에 잘 보여야 한다.
- 하나님의 공의는 빈부를 가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 하나님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보통 사람들은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그가 자기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어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그의 걸 모습의 겸손 보다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신다.
-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놀라운 것은 과거 2000년 보다 지금 100년동안 변한게 더 많다는 점이다.
- 지금의 청년들이 할게 너무 많다는 뜻.
-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을 다 이룬다면 얼마나 신나는 세상이 될 것인가?
- 다 이루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것 같다.

